

전일동향

전일대비 10.90원 상승한 1,484.10원에 마감

9일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일대비 10.90원 상승한 1,484.10원에 마감했다.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10.80원 상승한 1,484.00원에 개장했다. 장 초반 환율은 1,487.60원까지 치솟으며 고점을 찍으나, 위안화 약세 완화 흐름에 동조되며 1,476.90원까지 하락했다. 오후장에서 미국 상호관세 부과 조치 발표로 인한 국내 증시 외인 매도세에 환율은 다시 상승세를 보이며, 1,484.10원에 증가(15:30 기준)를 기록했다. 주간장중 변동 폭은 10.70원이었다. 한편,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-원 재정환율은 1,020.91원이다.

전일환율변동	구분	시가	고가	저가	증가(15:30)	평균환율 (매매기준율)
	달러	1484.00	1487.60	1472.00	1484.10	1482.90
엔화	1006.80	1025.70	1000.88	1004.12	-	
유로화	1614.06	1643.19	1610.64	1624.87	-	

F/X(달러-원) 스왑포인트	1M	3M	6M	12M
	보장환율(수출)	-1.73	-7.29	-15.35
결제환율(수입)	-1.44	-6.35	-13.5	-25.14

*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,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
*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,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(<https://www.ksure.or.kr/rh-fx/index.do>) 확인

금일 전망

美 상호관세 유예에...1,440원대 중반 중심 등락 전망

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(-2.55원)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(1,484.10) 대비 39.55원 하락한 1,442.0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.

금일 환율은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에 따른 위험선호 심리 회복에 하락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.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제외한 약 75개 이상의 국가에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며, 각국 관세율을 기본관세인 10%로 일괄 하향 조정하겠다고 발표했다. 다만 미국에 보복관세를 부과한 중국에 대해서는 관세를 125%로 인상하겠다고 언급했다.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발표에 따른 위험선호 심리 유입에 뉴욕증시는 급등하며, 다우지수 7.87%, S&P500 9.52%, 나스닥 12.16% 상승 마감했다. 달러인덱스는 미국 경기침체 우려 해소 및 주요국과의 협상 가능성에 약세 폭을 축소하며 102.99를 기록했다. 위험선호 심리 확산에 국내증시 반등 및 외인 순매수 흐름 재개 가능성이 농후하며, 이에 금일 환율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. 수출업체 추격매도 물량 유입도 환율 하락의 재료로 소화될 것으로 판단된다.

다만, 수입업체 결제 등 실수요 저가매수에 환율의 하단은 지지될 것으로 보인다.

금일 달러/원 예상 범위	1438.25 ~ 1450.50 원
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

체크포인트	■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: -10006.54 억원
	■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(NDF) :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39.55원 ↓
	■ 美 다우지수 : 40608.45, +2962.86p(+7.87%)
	■ 전일 현물환 거래량(종합) : 122.65 억달러
	■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: +17472 억원

※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